

Daily Auto Check

2021. 12. 06 (Mon)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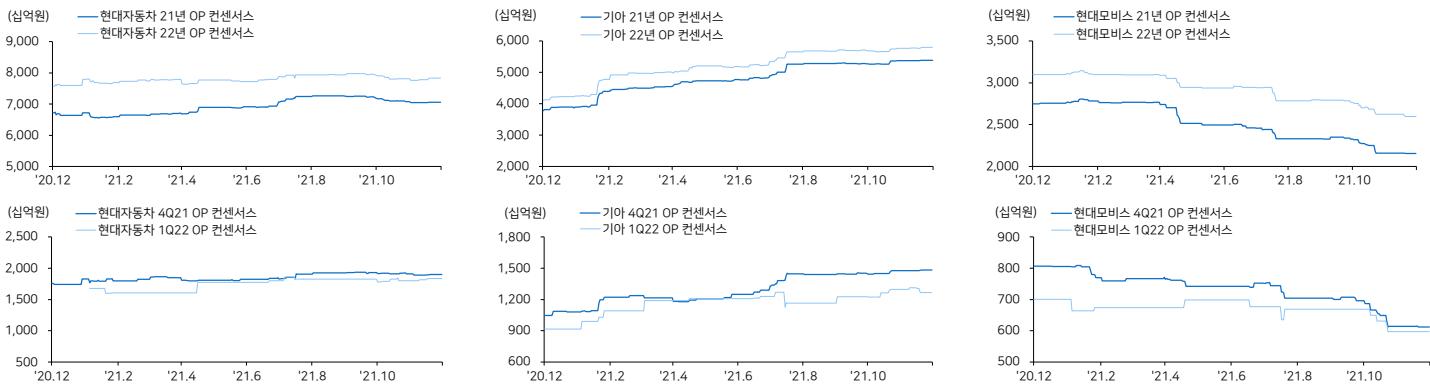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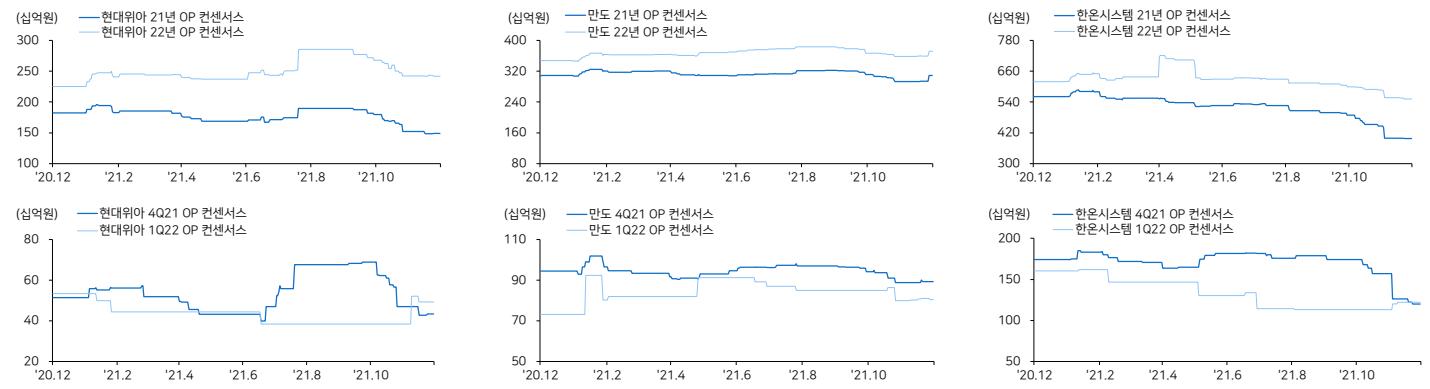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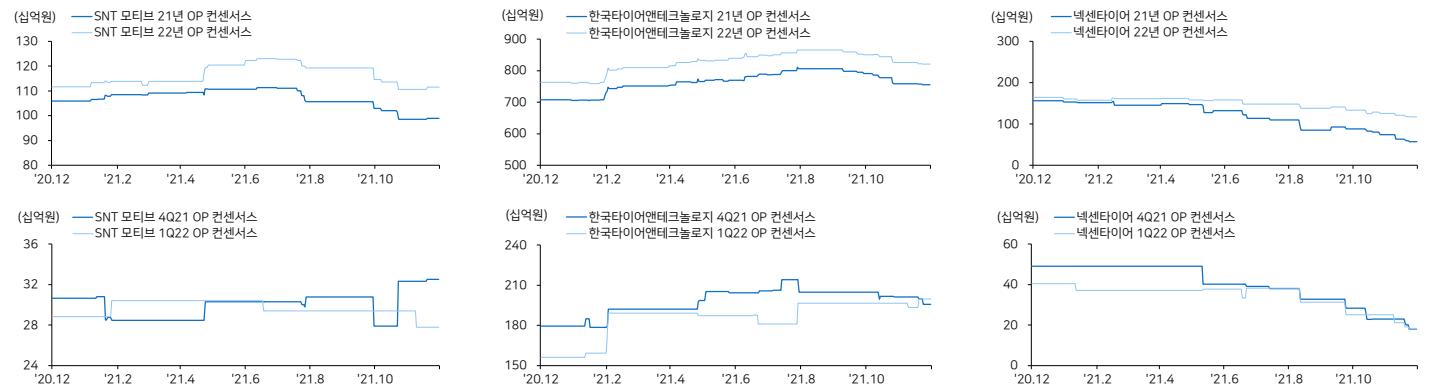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주말 특근 재개한 현대차·“車 반도체 대란 끌어 보인다”(뉴스1)

현대자동차가 지난 4일 올해 차음으로 주말 특근을 시행할 예정. 이를 통해 월 2만~2.4만 대의 추가 생산이 가능할 전망.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9월부터 차량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으며,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기업 재고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https://bit.ly/3xVJhU9>

“김기사 은퇴하게” 제네시스 G90 자율주행 레벨3 어느 수준? (데일리안)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에 레벨3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적용될 예정. 기존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에 라이다가 추가된 센서 퓨전 기술이 적용돼 레벨3 자율주행 대응이 가능해짐.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기능도 도입됨.
<https://bit.ly/3Er7x2X>

USTR backs efforts to strengthen U.S. EV industry despite objections (Reuters)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금요일 미 노조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제안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Mary Ng 캐나다 통상 장관은 해당 법안이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 협상을 위반한다고 언급.
<https://bit.ly/3douWQc>

Lucid must early win into lasting success (Automotive News)

10월 말 루시드모터스가 첫 세단 모델 Air를 인도하며 Ford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으려는 인기를 얻었으나, 향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품질의 차량을 양산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됨. 현재 루시드 Capa는 34,000대, '23년 90,000대로 계획 중.
<https://bit.ly/3pAyZ8m>

내년 신차 가격 5% 오른다…전세계 카풀레이션 뒷치나 (한국경제)

현대차와 기아의 내년 신차 가격이 평균 3~5% 오를 것으로 예상됨. 가격 상승의 이유는 철강재 가격 인상, 반도체 공급난, 물류 비용 등이 꼽힘. 카풀레이션 현상은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뉴노멀’로 자리잡는 중.
<https://bit.ly/3pr1fdU>

바이두 로보택시 타보니…비보호 좌회전·추월도 척척 (한국경제)

베이징에서 지난 25일부터 바이두와 포니카가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함. 연적 60km에서 바이두 67대, 포니카 33대를 승하차 지점 200여 곳을 기점으로 운영.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함.
<https://bit.ly/3132ChW>

Norway again shows the all-electric car future is closer than people think (electrek)

노르웨이 11월 자동차 판매의 73.8%가 BEV이며, xEV 판매량 비중은 94.9%를 기록함. 노르웨이는 '25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가 BEV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기 달성을 위해 노력 중. 선거자 미래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점을 시사.
<https://bit.ly/31xLWHs>

Tesla App update shows Vehicle Sharing features could come soon (Teslarati)

Tesla는 스마트폰 App에 차량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됨. Twitter의 @Tesla_App_iOS는 업데이트된 코드에서 차량 공유 기능 단서를 트윗함. 이는 궁극적으로 로보택시를 위한 단계별 가능성에 제기됨.
<https://bit.ly/3IoxDl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